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발 맞춰

군산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표시제 홍보

군산시가 2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발맞춰 소비기한표시제(USE-BY DATE) 홍보에 나섰다.

식품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과 영업자의 소비기한 설정실적을 근거로 유통기한보다 기한이 더 늘어난다.

그동안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식품으로 인식하여 변질되지 않은 식품을 폐기하여

식량 낭비가 심화되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식품 제조기술의 발전 포장재질 변화 유통환경의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식품폐기물 감소 및 환경, 경제적 편익을 위하여 식품 소비기한으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온도와 습도 등 제품의 맞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을 때 평균 과거(45일-61일), 두부(17일-23일), 생면(35일-42일), 신선편의식품(6일-8일), 햄(38일-67일), 과채음료(11일-20일) 등 180개의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하였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등 설정실적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을 향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내 유업계·낙농업계의 신선유제품(냉장보관 제품 포함)은 변질을 우려해 충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 후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식품소비기한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관내 식품제조업체 800여곳을 방문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지도 했다.

다만 영업자의 포장지 교체 비용부담을 고려해 기존의 포장지 교체 비용부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제품에서 유통기한 문구도 볼 수 있으니 소비자는 이 점을 참고해 식품을 구입·섭취하면 된다.



익산시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우수한 평생학습 정책 수행으로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았다.

'좋은정책어워드' 2관왕 수상

익산시, 평생학습도시 확대... 품격도시 실현

익산시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우수한 평생학습 정책 수행으로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았다.

25일 시에 따르면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AWARD 공모전 시상식에서 '좋은 정책상'과 '평생교육 사상'을 수상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하고 EBS 한국방송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평생학습도시의 우수사례를 선발해 평생학습 정책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89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좋은 정책', '평생교육사', '파트너십' 3개 분야로 나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스스로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

'평생교육사' 분야에서는 '퇴근길 학습 한잔', '50+ 어깨동무 인생학교', '익산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일상의 삶을 평생교육과 연계해 기획한 최영목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제1회 평생학습도시 정책 어워드에 선정돼 익산시의 우수한 사례를 알릴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군산시 경암동 복합생활SOC조성사업 본격 추진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총사업비 108억원 투입 2023년 준공 목표

군산시는 25일 구암초등학교 유희부지와 현 경암동 주민센터 부지 내 경암동 복합생활SOC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 50억, 도비 8억 포함 총사업비 108억원이 투입, 2023년 준공을 목표로 1동 3층 규모로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실, 운동시설, 주민센터, 아이돌봄시설 등이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설계완료하고 올해 1월 중 시공사를 선정, 신속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향후 주민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사업을 위해 공모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라북도 교육청, 군산시 교육지원청, 구암초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사업 추진 과정 중 지역 주민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며 "조성 이후 도심공동화 현상, 인구 유출 등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이 지역에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학생, 주민, 노인 등 세대 간 교류가 촉진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거점시설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방문의 해' 맞아 설맞이 이벤트 성료

익산시 대표 관광지가 설 연휴 귀성객들로 성황을 이루며 희망찬 2023 익산방문의 해 출발을 일렷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설 연휴 4일간 익산 대표 관광지 2만여 관광객들이 몰렸다. 한과 속에서도 관광객들은 백제역사문화 관광지에서부터 교도소세트장,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아트센터 등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끽했다.

우선 이색체험여행으로 인기 높은 교도소세트장에서 설 명절 당일인 22

일과 23일 이틀간 펼쳐진 전통놀이와 이벤트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웃놀이와 딱지치기, 국궁, 투호, 제기차기를 진행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특히 제기차기로 서로의 실력을 겨루며 즐거워했다.

이벤트인 가래떡줍기 달고나 만들기, 연날리기 체험이 진행됐고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 만들기는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인기 체험이었다.

또한 백제왕궁박물관에서는 계묘년



을 맞아 '강충경중 달토기 우드사터' 선착순 체험과 전통놀이를 함께 진행해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익산문화예술의거리에 있는 아트센터 역시 가족관광객을 위하여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했다.

익산 홍보대사 김용임,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익산시 홍보대사이자 인기 트로트 가수인 김용임이 25일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로써 김용임은 프로골퍼 박현경 선수에 이어 익산시 홍보대사 가운데 두 번째 기부자로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시는 전달받은 기부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기부자인 가수 김용임은 익산시가 마련한 소정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가수 김용임은 "익산의 팔이자 홍보대사로서 지역에 작은 보탬을 드리게 돼 매우 뜻깊고 뿌듯한 마음이다"며 "앞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발전에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비쁜 와중에도 우리 익산에 대한 애정심을 가득 담아 기부



에 동참해 주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 출신의 김용임은 지난 1984년 '목련'으로 데뷔해 '사랑님', '사랑의 빛줄', '부초 같은 인생' 등 다양한 노래를 히트시키며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MBN '불타는 시기를 버린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비쁜 와중에도 우리 익산에 대한 애정심을 가득 담아 기부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